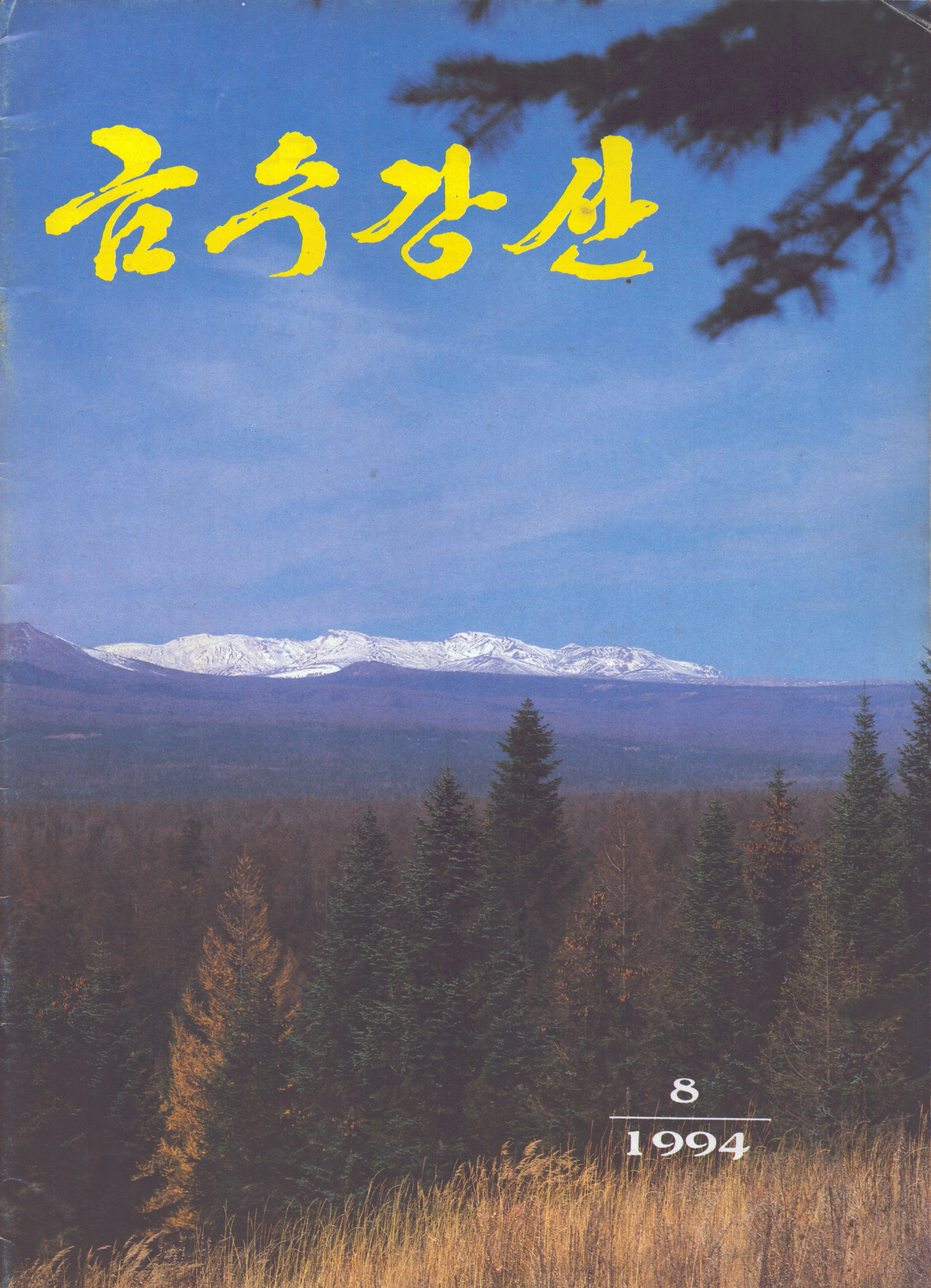

금수강산
8
1994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작사 리찬, 작곡 김원균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 봄이 온다
(후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각계각층 근로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오는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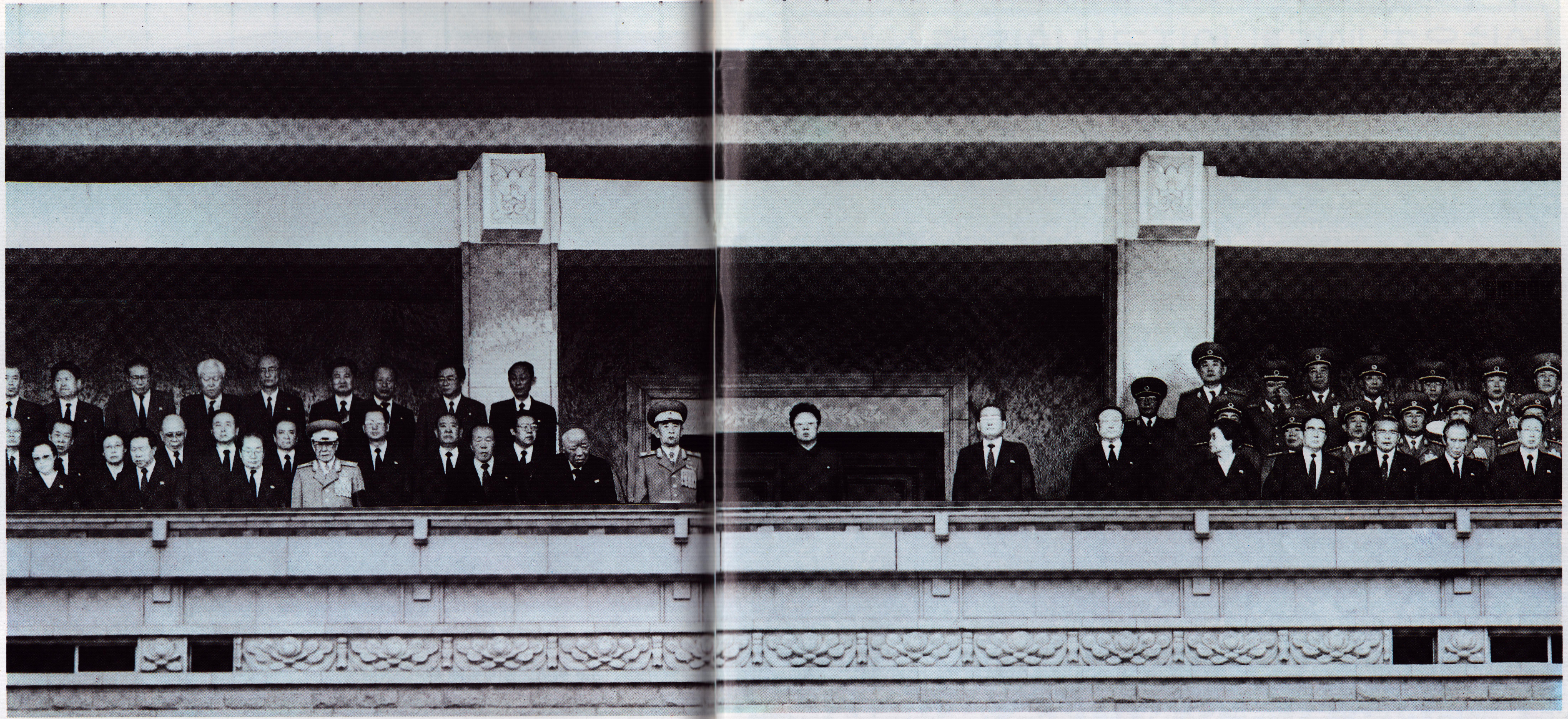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령구차대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차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 앞을 지나갔다.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 표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주석단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는 외국인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끝없이 찾아오는 평양시안의 근로자들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화환들도 진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인민군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쉬임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있는 력사적인 이 시각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뜻하지 않게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온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가장 어려운 민족수난의 시기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령도의 천재이시였으며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며 끝없이 존경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시고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 주체의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였으며 .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시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식의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으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

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 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심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였으며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험산준령을 넘으시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며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뚫고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과 백절불굴의 의지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승리의 한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령도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생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로지 그것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계속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여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 있을것이며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1994년 7월 8일

어버이를 잃은 슬픔

우리 민족의 5천년 력사에 7월 8일이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을 기록한 날로 될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밝아오는 통일의 아침을 눈앞에 그리며 환희에 넘쳐있던 사람들은 7월 9일 낮 12시 라지오와 텔레비죤에서 울려나오는 방송원의 울음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금시 심장이 박동을 멈추는듯한 충격에 온몸을 떨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비보가 온 세상에 전해졌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도 있단말인가.

처음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정력에 넘쳐 농촌현지지도와 대외활동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흠모하며 우러르던 인민이였다. 그이를 떠난 생활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였다.

그대로 믿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현실앞에서 사람들은 일시에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신것을 민족최대의 행운으로, 세상에서 제일가는 자랑으로 여겨오던 우리 인민이 아니였던가.

《수령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말입니까!》 온 나라 방방곡곡의 일터와 거리, 마을들에서 비통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하늘도 폭풍을 일으키며 무수한 비방울을 떨구었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쳤다.

온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어버이되시여 찬바람, 궂은비 다 가려주시며 인민과 더불어 80여성상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인민, 남들에게 없는 수령복을 받았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인민을 두고 어떻게 가실수 있단말인가. 온 삼천리강토에 어버이를 목놓아 부르는 인민의 곡성이 차고넘쳤다.

전국각지의 기관, 기업소들, 학교들, 주택들에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아 조기가 띄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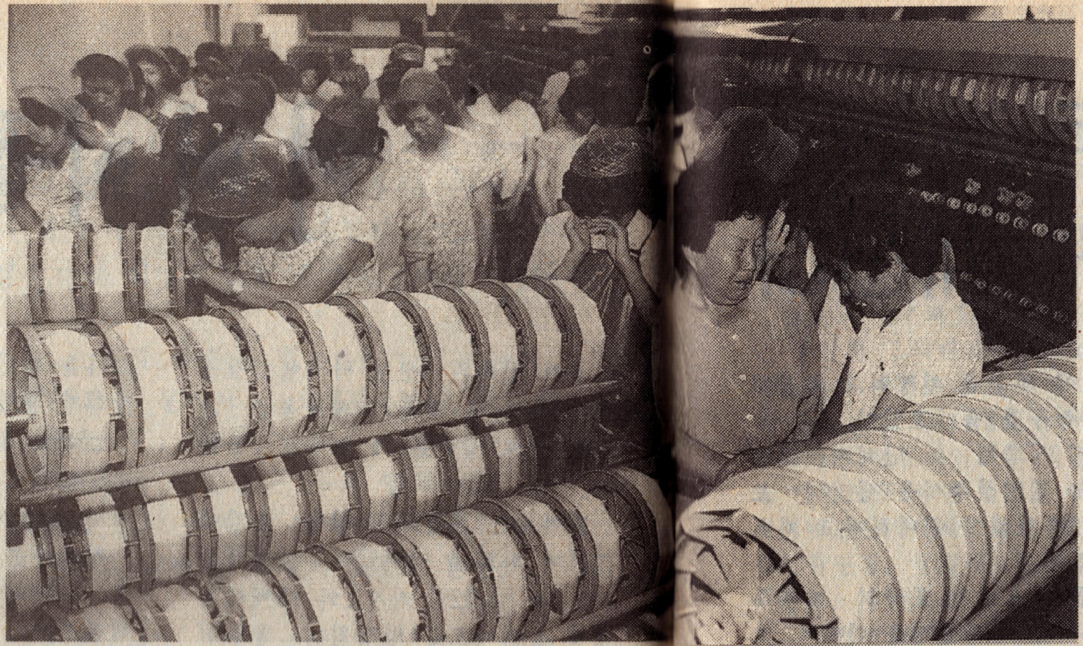
형언할수 없는 비애와 슬픔을 체험하는 그 시각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았다.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그이의 영상이 그리울 때마다 낮이나 밤이나 때없이 달려오던곳, 만수축원의 념원안고 삼가 큰절을 올리던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 검은 댕기 드리운 화환을 놓는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져와 포석우에 엎드린채 오열을 터뜨렸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인민들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



작업장에서 비보를 듣고 슬피 우는 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는 전쟁로병들

다.

《어버이수령님! 늙지 말고 오래오래 살자고 하시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원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주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이 딸은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아버지! …》

《우리들의 심장을 다 바치겠으니 단 한번만이라도 눈을 떠주십시오.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로투사도, 그이의 손길밑에서 영웅으로 자라난 녀성일군도, 이름모를 인민군병사도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고 또 울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거룩하신 발자취가 어려있는곳들마다에는 련일 각계각층 인민들이 끝없이 모여들어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그이를 추모하였다.

퍼붓는 비속에 꿇어앉아 흐느껴 울며 온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가슴을 허비는 절통함에 몸부림치다가 그 자리에서 혼절하는 사람들, 작은 심장으로 감수하기엔 너무나도 큰 슬픔앞에서 가슴을 쥐여뜯으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

력사는 자기 수령의 서거를 이처럼 애석하고 비통하게 추모한 인민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최대의 피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후손만대에 남기신 귀중한 유훈과 당부를 생각하였다. 슬픔을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리라!

이것이 어버이의 령전에서 수천만 아들딸들이 다지는 가장 신성한 맹세였다.

본사기자



인생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있는 리인모동지



최대의 손실과 크나큰 아픔으로 몸부림치고있는 인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즈음하여 여러 추모행사들이 진행되였다.

7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이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찾으시여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여있었으며 붉은 기폭에 덮여있었다.

령구옆에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의 명의로 된 화환을 비롯한 많은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동행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묵상하시였으며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애도기간에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평양시내 각계층 인민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찾으시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으며 조의방문에 참가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의식장인 금수산의사당으로는 당과 국가의 일군들로부터 평범한 로동자, 농민,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의 로인으로부터 청소년학생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련일 끝없이 찾아왔다.

추도곡이 비장하게 울리는 가운데 조객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화환을 진정하고 묵상하였으며 령구를 돌아보았다.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여있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한없이 위대하시고 자애로우시였다.

조객들은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와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이 너무나도 애석하고 절통하여 그이를 목놓아부르며 오래도록 령구결을 떠나지 못하였다.

금수산의사당에서 8일간에 걸쳐 진행된 조의식에는 평양과 전국의 11개 도(직할시), 200여개의 시, 군(구역)들에서 온 각급기관 일군들과 로동계급, 협동농민들, 지식인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장병들과 사회안전원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조의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인민의 심장속에 살아계신다고 격정을 토로하였으며 그이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받들어나갈것을 엄숙히 맹세다졌다.

한편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의 조의대표단, 범민련 사무총장인 해외본부 림민식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범민련 해외본부 부의장인 일본지역본부 량동민의장을 단원으로 하는 범민련 해외본부 조의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강일위원장,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재미교포 녀류기자 문명자,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영동의장,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최기환의장, 범민련 카나다지역본부 전충림의장일행, 범민련 미국본부 선우학원고문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의대표단과 조객들 그리고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일행, 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일행, 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일행, 장울화동지의 동생과 자녀 일행 등 수많은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과 외국손님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 당과 정부들에서 보내온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영결하는 의식이 7월 19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령구발인에 앞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묵상하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영결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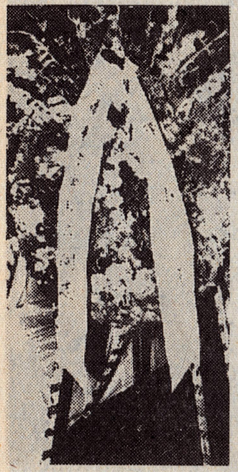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가 서서히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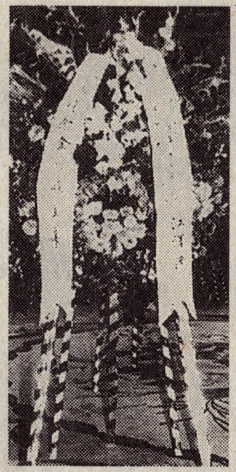


비통한 심정안고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근로자들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보내온 화환들



중국의 등소평동지가 보내온 화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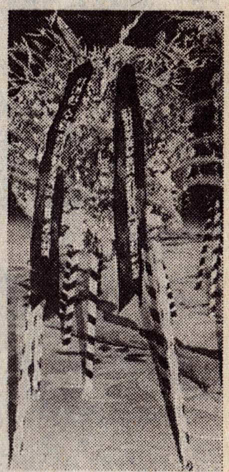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보내온 화환



캄보쟈왕국 국왕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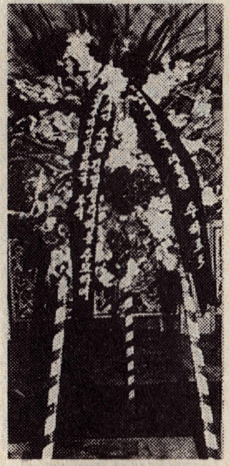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인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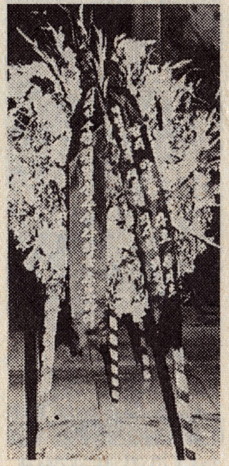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위대한 9월1일혁명의 지도자가 보내온 화환



예멘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 보내온 화환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장이 영결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령구차는 김일성주석께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와 륙해공군의장대 앞을 지나갔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차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의 배동하에 김일성주석과 영결하기 위하여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운집해있는 연도로 향하였다.

령구차행렬은 룡흥네거리로부터 혁신거리, 영웅거리, 천리마거리, 통일거리, 청년거리와 평양산원, 평양학생소년궁전 앞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 평양대극장, 승리거리, 개선거리에 이르는 100여리 연도를 누벼나갔다.



슬픔을 억제 못하는 군인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에 가슴치며 목메여 흐느끼는 수백만 평양시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령구가 안치될 장소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에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결의 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되고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김일성주석과의 마지막영결의 시각을 앞두고 령구에 엄숙히 경례를 표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명예위병대가 24발의 조포와 조총을 쏘았다.

이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령구를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조포를 쏘았다.

7월 20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추도대회가 거행되는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통로들, 김일성경기장, 개선문광장, 전승광장, 역전광장 등 시내의 광장들과 경기장, 학교운동장들은 우리 조국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불행을 안고 가슴을 치며 모여온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남녀로소 수백만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추도대회장은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80여성상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민족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로이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주석을 잃은 커다란 슬픔과 절통감에 잠겨있었다.

오전 10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과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교포인사들,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리정상대표, 이딸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가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계 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영웅들과 애국렬사유가족들, 평양시의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그리고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과 해외교포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의 벗들과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사절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추도대회의 시작이 선언되자 묵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추도대회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묵도하였다.

추도대회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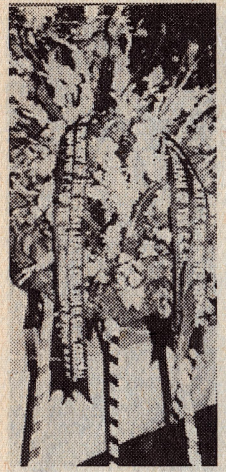
추도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인 김영남동지가 하였다.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로력영웅 조영기,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김명연,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김광진차수, 해외동포들을 대표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총련조의대표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보내온 화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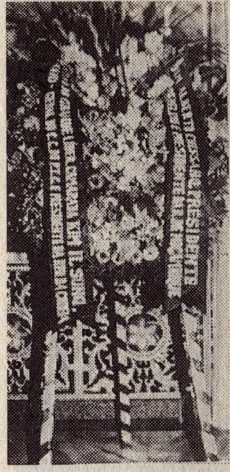
탄자니아혁명당위원장,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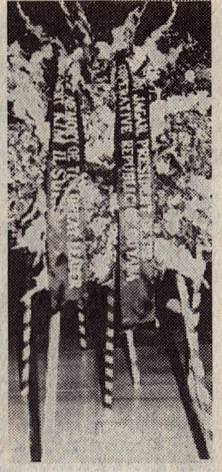
니까라과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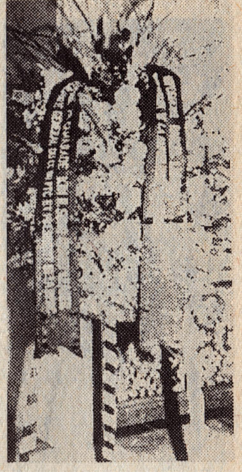
앙골라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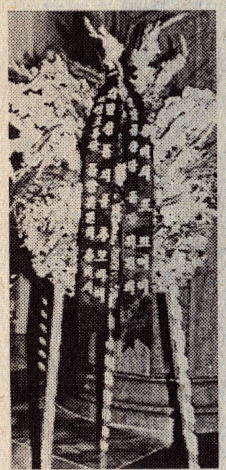
모잠비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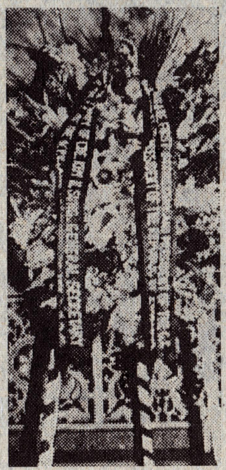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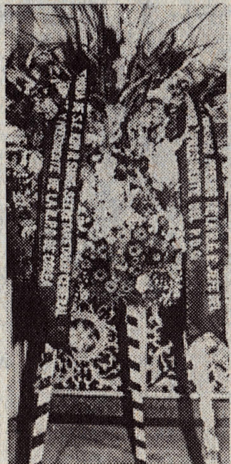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보내온 화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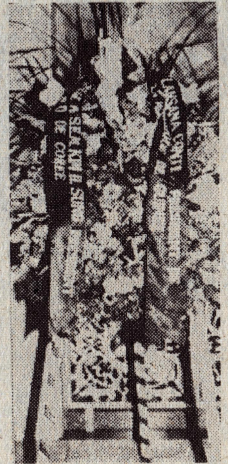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기네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이 보내온 화환

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헌신분투해오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가장 심심한 애도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으로 추모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지켜 겨레의 운명이시고 생명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연설들이 끝나자 《인터나쇼날》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포가 발사되고 고동이 길게 울리였다.

그 순간, 우리 조국 3천리강토는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 잠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는 외국인들

추도대회가 진행된 7월 20일 낮 12시정각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이 3분동안 묵도하였으며 모든 기관차, 선박들에서 일제히 고동을 길게 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추모하는 추도식은 각 도, 시, 군들과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부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그이의 거룩하신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평생의 로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혁명무력을 철통같이 다지며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세련된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용호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하여 묵도하는 인민군장병들

중앙추도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정무원부총리인 김영남동지의

추 도 사

동지들,

평양시민 여러분,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7천만 조선동포들,

우리는 지금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크나큰 민족적불행을 안고 가슴을 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온 나라가 형언할수 없는 슬픔에 휩싸이고 진보적인류가 커다란 비감에 잠겨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시며 대원수이신 **김일성**동지와 비통한 심정으로 영결하게 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다함없는 경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추도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여 영영 돌아오시지 못할 그 길로 가시게 되는 이 가슴아픈 시각에 우리모두는 한없이 비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갑자기 서거하신것은 너무나도 애석하고 절통한 일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영광넘치였으며 수령님의 품속에 안기여 우리 인민은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자라나 이 세상 어느 나라 인민도 누릴수 없는 최대의 행복을 누려왔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였고 우리모두의 친어버이이시였으며 그이의 품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였고 어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있었습니다. 이 뗄래야 뗄수 없는 혼연일체에서 수령과 인민이 뜻밖에 헤여진다는 기막힌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위대한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으며 우리 인민은 생명의 어버이를 잃었습니다.

그처럼 자애롭고 거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영상을 두번다시 뵈옵지 못하게 된 우리 인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며 빛을 잃었습니다.

80고령의 몸으로 얼마전까지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불면불휴의 대외활동을 벌리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시였으니 우리 인민의 심정은 더욱 통절하고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였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다지도 아프지 않을것입니다.

애도의 전기간 온 나라 방방곡곡은 울음바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으며 우리의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그리고 남녀로소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와 동상을 찾아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통곡하며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깊은 경모의 마음으로 추모하였습니다. 그것은 실로 자기 수령을 가장 열렬히 경애하고 신뢰하는 인민만이, 수령과 하나의 혈연으로 이어진 인민만이 운명의 기둥을 잃고 터뜨리는 절통한 감정의 분출이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력사에 새겨진 지난 10여일간은 우리 수령님의 세계사적위대성을 더욱 절절히 느끼게 한 숭엄하고 비장한 나날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동서방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저명한 인사들, 진보적인민들이 우리 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을 잃은데 대하여 애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였으며 진정에 넘친 경모심을 안고 우리 인민과 슬픔을 같이하였습니다.

더는 어찌할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안고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각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였던 크나큰 영광과 민족적행운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더욱 북받쳐오르는 흠모와 애도의 심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20세기와 더불어 흘러간 우리 민족과 인류의 력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기록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한생이였으며 위인중의 위인의 가장 거룩한 한생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의 거장이시였고 령도의 천재이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시였고 가장 숭고한 인덕의 체현자이시였습니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10대의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0고령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심으로써 우리 민족력사와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력사발전의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참된 지도사상으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국광복과 민족번영의 대업을 이룩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면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장 20성상에 걸치는 오랜 기간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고 풍찬로숙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 가장 현명한 주체의 건당, 건국, 건군 로선을 제시하시여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은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던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이끄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두번다시 식민지노예의 참화로부터 구원되였으며 수령님의 존함은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되였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식의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적당건설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세련된 령도력과 강한 전투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혁명에 바치시여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과 50성상에 이르는 새 사회 건설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그 크나큰 로고와 은덕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력사적인 전변,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과 영광은 그 어느것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당대에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그토록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령도자는 지난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 마음에 늘 걸린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온갖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지향과 리익을 반영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 방침과 방도들을 련이어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7천만 전체 조선민족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오시고 세계정치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숭고한 로고가 있었음으로 하여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릴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외교포운동에도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여 모든 해외동포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인류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시대,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세계를 자주화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한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세계 여러나라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세계정치의 원로로 높은 존경을 받아오시였으며 자주시대를 향도하는 령도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김일성**동지의 70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로정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복무로 일관된 영광스러운 로정이였습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계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쉬임없이 이어오신 전국 방방곡곡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사랑의 길이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은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혁명가이시고 혁명의 성인이시였습니다.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 우리 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있는 이 력사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지 못하시고 애석하게 서거하신것은 너무도 절통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관하지 않으며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갈수 있는 령도의 후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주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특출한 공적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이신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자신의 필생의 대업으로 내세우고계십니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풍모,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한분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전당, 전군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대적도 두렵지 않으며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후계자, 혁명의 령도자를 잘 모시고 그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면서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다지는 맹세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그 하나의 맹세뿐입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이 곧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길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자신들의 충성과 효성이 모자라서 어버이수령님을 더 오래 모시지 못한 오늘의 자책감에서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당, 전국, 전군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의 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의 신심드높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빛나는 완성에로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은 떠나가신 수령님앞에서 우리 혁명전사들이 지닌 숭고한 도리이며 혁명적본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자손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틀어쥐고나가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의 만년초석인 백두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우리 당과 국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로 빛내이며 모든 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계속 견지하여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자립, 자위의 위력을 변함없이 힘있게 떨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나큰 로고를 다하여 마련해주신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고수하며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 전민, 전군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그 불패의 힘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고 빛내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일관하게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특히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이 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시려던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을 최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리도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일의 그날을 끝끝내 보지 못하시고 절통하게도 돌아가시였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 민족의 어버이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소망을 기어이 풀어드려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주화된 새 세계 건설에서 지닌 중대한 시대적사명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이어 공화국의 끊임없는 번영과 조국의 통일, 주체적혁명위업의 완성을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인자하신 영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천년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더욱 꽃펴나게 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략사

김일성동지께서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한 빈농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조선인민의 근대혁명운동의 첫시기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대중의 선두에서 싸워온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시절부터 가정에서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으며 학습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시고 비범한 혁명가로 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고 투쟁을 벌려나가시는 과정에 새로운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6년 10월 17일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며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 《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1929년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시면서 청년학생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시고 교양하시였으며 일제와 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29년 가을~1930년 봄 길림에서 옥중생활을 하시면서 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무르익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6월 중국 장춘현 카륜에서 소집하신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동력과 대상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일민족해방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 3일 카륜에서 몸소 육성하신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였다. 이 첫 당조직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으로 되였으며 그후 련이어 조직된 당조직들의 원형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7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무장조직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 및 반군사 조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상비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여 그의 사령관으로 되시였으며 1934년 5월에는 조선인민혁명군안의 당조직과 지방당조직들까지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5월 5일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그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조선혁명을 앞으로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으시고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당, 국가, 군대를 건설하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5년 10월 10일에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심으로써 당창건위업을 완성하신데 이어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을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을 결성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결속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그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여 북반부에서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들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완수되자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그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3월에 소집된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침과 혁명적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8년 9월 9일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내각수상(국가수반)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여 조국해방전쟁(1950. 6. 25 ~ 1953. 7. 27)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3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1955년 4월에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발표하시였다. 테제에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여있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이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과 도시수공업 및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4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와 강선제강소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9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조선을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과 평안남도 숙천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에 소집된 조선로

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테제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5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에서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0년 11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작성하시고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그것을 채택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9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 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과 우월성, 그 공고발전을 위한 과업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12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제2차 7개년계획의 전망목표를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80년 10월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을 조선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였으며 1980년대에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통일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평화, 친선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명시하시고 대외활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집필하신 로작들은 《**김일성**저작집》 제1권으로부터 제38권(1930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간에 집필하신 주요로작들이 수록됨)까지,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으로부터 제9권까지에 집대성되여있다. 로작들에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김일성동지는 장구한 기간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세계혁명을 다그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로부터 오늘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로부터 제4기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국가수반)으로, 제5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1945년 10월부터 1966년 9월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당수반)으로, 1966년 10월부터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되시였으며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중영웅칭호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급훈장과 명예박사, 교수 칭호를 수여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김 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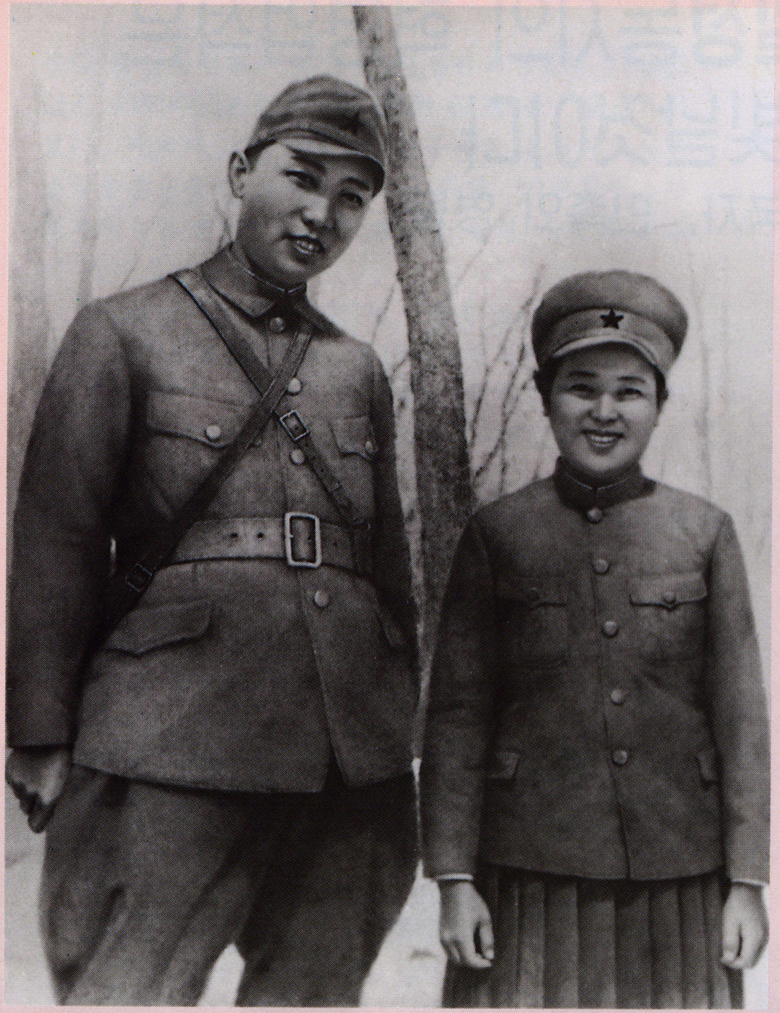
길림시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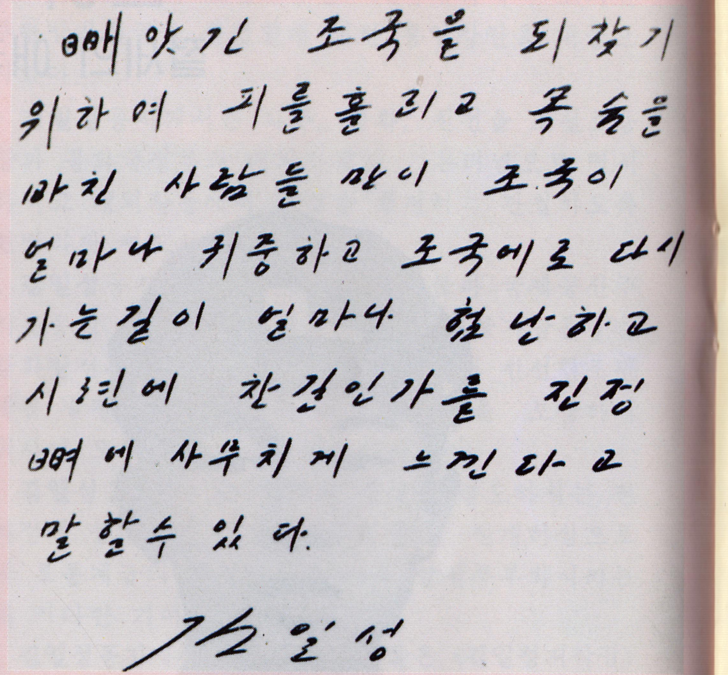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25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1923년)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에로 다시 가는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진정 뼈에 사무치게 느낀다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

백두산지구의 비밀근거지에 사령부를 두고 활동하시던 시기 김정숙동지와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두번째줄 가운데 앉아계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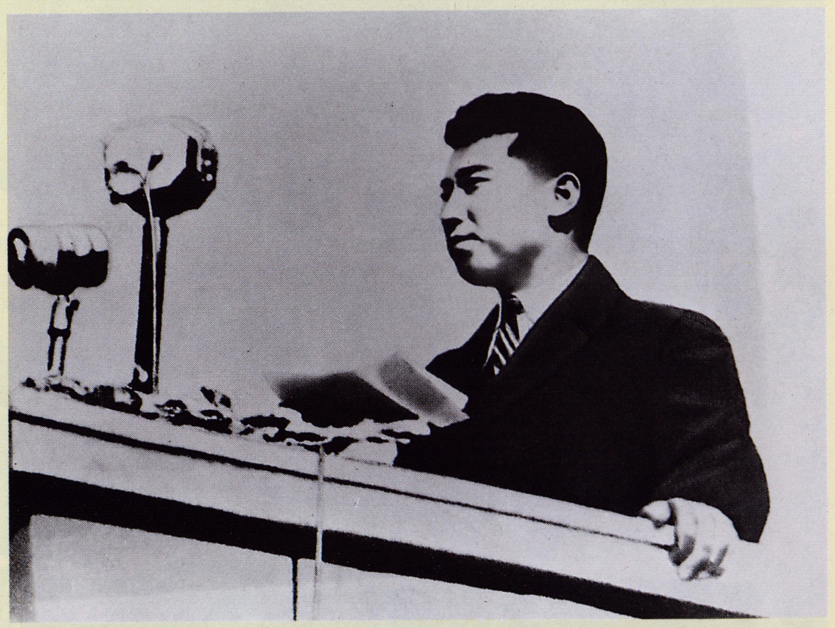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새 조선의 위대한 태양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김 일 성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10월 14일)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6년 5월 21일)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7년)



농민들과 함께 모를 꽂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47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김 일 성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1년)



대동군 원화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2년)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3년 8월 5일)

《…우리는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고 인민을 령도하는 당이 있는 이상 재더미우에서도 능히 다시 일떠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에 달라붙었습니다.》

김 일 성



장강군 종포리 농업협동조합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9년 4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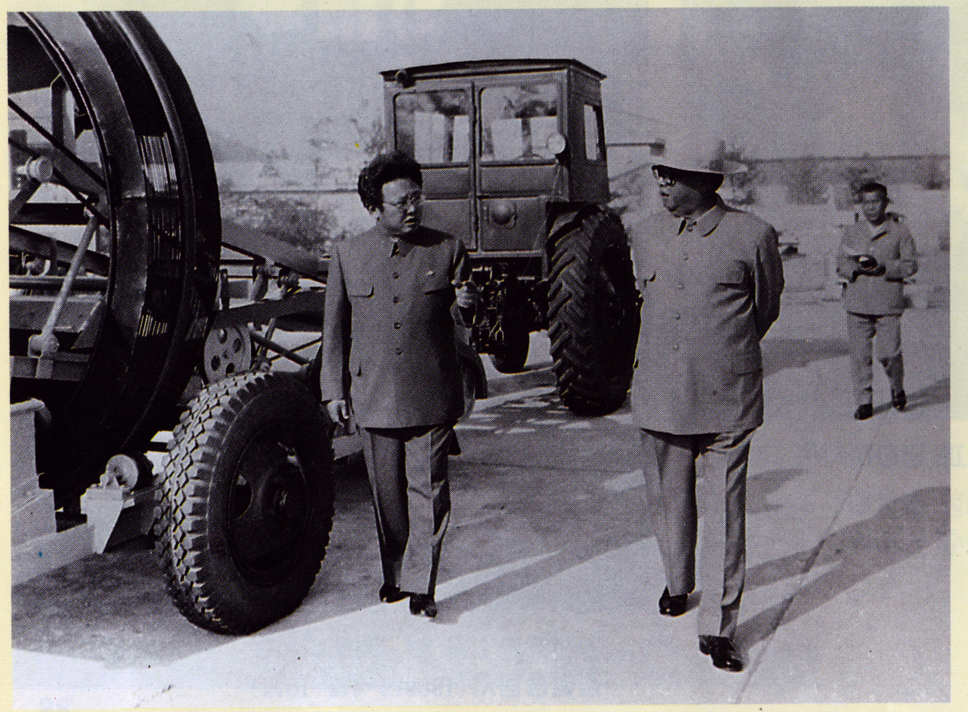
강서군 청산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58년 10월)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1994년 6월 20일)



새로 만든 농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61년 4월)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1972년 4월)



만경대 남리부락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5년 8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

《우리 당이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은 첫째로 나라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둘째로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하자는것이며, 셋째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자는것입니다.》

김 일 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84년 1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72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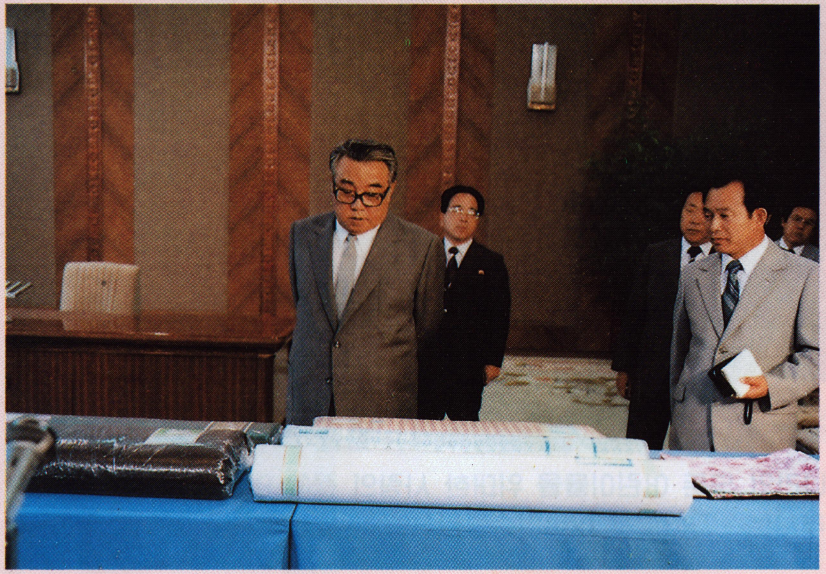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김 일 성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남조선수재민들에게 보낼 구호물자견본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일찌기 만경대에서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80여성상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며 우리모두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혁명의 최고뇌수, 위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애석하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였지만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의 존함과 고결한 인품은 영원히 우리 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그대로 남아있을것이다.

온 나라가 이루 헤아릴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는 이 시각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생애를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최고의 귀감이시였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가장 어려운 민족수난의 시기에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80고령에 이르는 오늘까지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한 가장 빛나는 인생행로를 걸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뚫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고 견결히 고수해오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민족적영웅의 생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시기는 민족의 머리우에 망국의 비운이 서린 가장 암담한 시기였다. 온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광복의 큰뜻을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20성상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시고 우리 인민에게 광복의 새 봄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조국앞에 가장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여오시였으며 가장 강대한 적들과의 대결에서 꺾이지 않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리상이 꽃피는 인민의 참다운 락원을 건설해오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의 영광찬란한 년대기였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시고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며 사회주의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력사의 수난자로 불리우던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도, 우리의 행복의 요람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것이다.

인민대중의 가장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이끄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속에 계시였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재부를 튼튼히 마련하여오신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생애였다.

일찍부터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의 굳고 억센 혈통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수령의 위업계승문제를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이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수령복을 타고난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모든 정치사상적, 물질기술적, 군사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옳바른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완벽하게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이 사소한 우여곡절도 없이 전진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있고 위력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리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주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게 되였으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 당과 혁명을 굳건히 보위해나가는 일당백의 당의 군대, 불패의 혁명무력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참다운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 실현에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일찌기 항일의 나날에 민족대단결의 자랑찬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의 가장 정당한 원칙과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시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통일위업 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이으시려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생애는 사회주의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류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의 한생이였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의무와 국제적의무에 다같이 충실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철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전반적인 반제자주위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우리 인민의 행복과 미래, 우리 조국과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어떻게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 세상이 열백번 바뀌고 지구가 깨여져나간다고 해도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오직 그 한길로만 걸어갈것이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여나갈것이다.

지금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혁명에서 최대의 손실을 당하였지만 절대로 비관하지 않으며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에게는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다. 이 강력한 무기와 반석같은 토대가 있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과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시고 우리 시대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 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것,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참된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두리에 단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곧 수령님의 생전의 가장 큰 뜻이고 우리의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며 우리 세대 인민들과 후대들이 자자손손 좌우명으로 새기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단 한치의 드팀이나 단 한걸음의 후퇴도 없을것이며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견결히 싸워나갈것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 그 일심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이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이를 충효일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갈것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온 민족이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내세우신 최상의 과제였으며 최대의 념원이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를 위하여 80여성상 그처럼 쉼없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갑송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참다운 벗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접한 전세계 인민들은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인류최대의 손실, 가장 큰 슬픔으로 여기면서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각종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꾸바, 웰남, 캄보쟈, 라오스, 타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애도기간을 정하였으며 수리아에서는 비보를 접한 즉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조기를 띄우기로 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조기를 띄웠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외국의 조의대표단을 받지 않는것과 관련하여 중국과 웰남, 캄보쟈, 인도, 수리아, 꾸바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 정부 수반들이 자기 나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 국무원총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당과 국가의 최고위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대사관을 조의방문하여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앞에 화환을 진정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강택민은 조의록에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하리라》라는 글을 남기고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계승하여 혁명위업을 계속 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는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고 조의록에 《우리는 조선과 사회주의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김일성**동지를 잃었습니다. 국제혁명운동은 위대한 보루를 잃었습니다…》라고 쓰고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는 전세계 공산주의혁명운동에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하였다.

웰남에서는 웰남공산당 중앙위원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는 외국인들과 류학생들

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을 무어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고 조의를 표시하였다.

중국에 체류중이던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는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고 가장 친근한 벗이시며 은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쌓으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 당과 국가, 정부 수반들이 **김일성**주석의 령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담은 화환을 보내여왔으며 애도기간 세계 160여개 나라에서 근 500명의 국가, 정부 수반들과 당 령도자들이 심심한 애도를 담은 조전을 보내여왔다.

또한 정계와 군부의 고위인물들과 사회계, 학계, 경제계 등 단체들과 개별인사들, 국제 및 지역 기구들에서 보내여온 조전들은 3,000여건에 달한다.

그들은 조전에서 **김일성**주석은 《세계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지칠줄 모르는 투사이시고 영광찬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영웅중의 영웅이시며 조선식사회주의락원을 밝게 비쳐준 세계의 태양》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조선인민과 세계의 싸우는 인민들의 력사에서 방향전환을 이룩하신 20세기의 탁월한 활동가, 혁명가》, 《쁠럭불가담운동을 위한 백전백승의 령도자》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모든 정의의 위업, 자유와 평화, 인민들의 복리를 견결히 옹호하시고 세계 사회주의사상에 기여》하신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전들에서는 또한 《그이께서 서거하심으로써 우리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위인을 잃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서거는 《전세계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 《제3세계위업의 손실》로 되며 《그이께서 계시지 않는 세계무대는 우리들에게 허전한 감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조전들은 비록 주석께서는 서거하시였지만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 남기신 거대한 업적은 조선력사의 황금시대와 자유와 평화,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투쟁력사에 길이길이 아로새겨져있을것》이며 《그이의 영상은 세기와 더불어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대통령 빌 클린톤은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진심으로 되는 조의를 표시하면서 두 정부사이의 회담재개를 위한 주석의 령도력을 평가한다는 조문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 대통령 지미 카터도 조문성명을 냈다. 카터방문선발대로 평양에 왔던 그의 개인보좌관은 카터가 평양방문후 자기는 **김일성**주석에게 완전히 매혹되였으며 그이를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이분이시야말로 평화애호적인분이시라는것을 느꼈다고 말한 사실과 주석께서 미국 등 서방나라들과의 관계개선과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진심으로 바라고계신다는것을 알수 있었다고 한 말을 유엔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조의방문하고 전달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이는 위대한 국가원수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한편 또고에서는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하에 대통령궁전에서 추도회가 진행되였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 당과 사회단체, 과학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자기 나라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고 조의를 표시하거나 애도행사를 진행하였다.

뻬루사회혁명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오직 사회주의길뿐이라는것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던 시기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리론을 발전시키시여 세계 과학적인 사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레바논에 있는 수리아민족사회당 전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깨진것과 같은것이다.》라고 애석해하면서 그이께서 비록 우리곁을 떠나시였어도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또한분의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마음이 든든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로씨야공산주의로동자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근로하는 로씨야》운동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 나라주재 우리 대사관을 조의방문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가를 잃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의 서거는 아버지를 잃은것과 같다.》고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에꽈도르공산당 총비서는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왔거나 가르치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주석에 대한 잊을수 없는 회억을 돌이켜보며 우리 나라 대사관이나 대표부, 우리 해외동포조직을 찾아와 애도를 표시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해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일을 회고하면서 그이는 력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라고 높이 칭송하며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유엔본부청사에는 조기를 게양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도 **김일성**주석의 유가족과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고 그이를 추모하여 묵상하였으며 유엔총회 제48차회의 98차전원회의 참가자들도 주석의 서거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유엔주재 각 나라 대표들도 미국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를 찾아와 애도를 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여러 정당의 고위인사들,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들, 수많은 출판보도계인사들이 총련중앙본부를 방문하고 조의를 표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즈음하여 특집을 조직하였다.

중국과 로씨야, 이딸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 신문, 텔레비죤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우리 나라에서 주석의 서거에 즈음하여 발표한 문건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의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통신, 방송들도 그 문건을 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천지에 서계시는 사진, 주석께서 중국의 등소평과 상봉하시는 사진,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와 만나시는 사진을 모시고 위대한 수령으로 존경받아오시던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최근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미국 전 대통령 카터가 주석의 지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이는 북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다고 한 말을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는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그이의 존함은 사회주의리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치》라고 썼다.

참으로 **김일성**주석께서 남기신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풍모는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하여 널리 보도한 세계 여러 나라 출판물들

남녘의 인민들 깊은 애도의 뜻 표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7월 8일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잃은 가장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비보가 전해지자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와 이 단체 상임고문 신창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남조선의 인사 유원호, 통일맞이 7천만겨레모임 리사장인 고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 남조선종교단체들, 종교인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재야인사들이 조전과 조문을 보내왔고 조의를 표시해왔다.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앞에 두고 **김일성**주석의 급서비보를 접한데 대해 놀라움과 애석함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찌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생전에 이루고자 애쓰시던 **김일성**주석께서 그 뜻을 못다이루시고 급서하신데 대하여 북녘동포들과 함께 애도합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남조선류학생들이 보내온 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기와 더불어 평생을 조국의 통일과 민중의 참된 삶을 추구하심에 부단한 정성을 다하신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민족의 젊은이들은 삼가 옷깃을 여미며 오늘의 슬픔을 래일의 민족대동단결을 통한 통일에 선봉이 될것을 주석의 령전에 약속드립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고 슬픔이며 인류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면서 《한민전》 중앙위원회와 산하 각급 조직들, 각계각층의 애국적투쟁단체들에서 추모식을 엄숙히 거행하게 된다는것을 알리고 국민들도 경향각지에 분향소들을 차려놓고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남조선각지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빈소들을 차려놓고 애도기간을 설정하여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였다.

남조선대학생들은 대자보를 발간하고 추모인쇄물을 배포하였으며 《한총련》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것은 온 민중의 큰 아픔이자 손실이라고 하였으며 이남의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조문단을 파견하고 이남에서도 추모와 애도 행사를 하도록 허용할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비보가 전해진 다음날인 10일저녁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대학가주변의 한 다방벽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는 《통일애국청년회》 명의로 된 현수막이 내걸려 사람들의 애석함과 경모의 마음을 더해주었다.

길이 1.5메터, 너비 70센치메터의 붉은천으로 된 현수막에는 검은색의 붓글씨로 다음과 같이 씌여있었다.

《만민이 우러르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를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합니다.

현시대가 낳은 탁월한 령도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천세만세 길이 전해질것입니다. 〈통일애국청년회〉

1994년 7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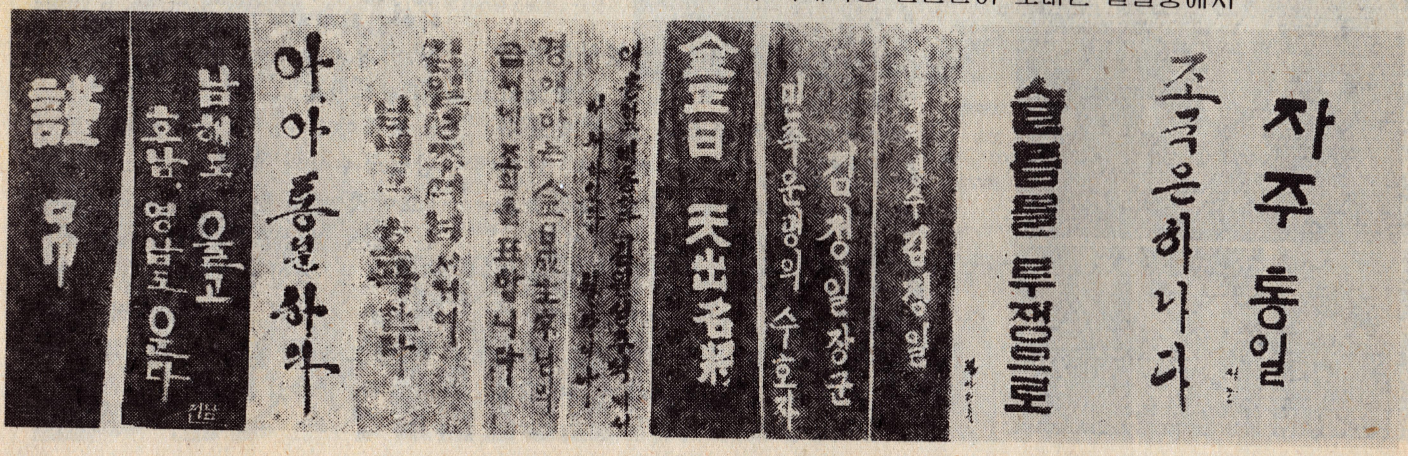
남조선의 로동자, 농어민들과 도시민들, 사병들도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비분을 가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치하에서 복락을 누리며 마음껏 일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욱 꿋꿋이 살며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학생들, 인사들은 추모활동을 계획한 학생들과 단체들을 탄압하고 련행해가는 《정부》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청와대》의 극심한 탄압선풍속에서도 조건과 환경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민족의 령수를 잃은 최대의 슬픔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진심으로 추모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수령님을 흠모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보내온 글발중에서



해외동포들 최대의 슬픔으로 추모

한없이 경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난 7월 8일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접한 이국의 겨레들은 5,000년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가장 큰 슬픔에 잠겨 깊은 애도의 뜻을 담아 추모하였다.

비보에 접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한덕수의장과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양영동의장,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강일위원장, 해외동포학자민족통일연구소 최경태소장,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은 억제할수 없는 비분으로 가슴을 적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원수님께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담아 조전을 보내왔다. 그리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해외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범민련 해외지역본부들(구라파지역본부, 오스트랄리아지역본부, 일본지역본부, 카나다지역본부, 미국본부)에서도 조전을 보내여왔다.

총련 한덕수의장은 조전에서 하늘의 태양이 있어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선이 있고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해외동포의 존엄있고 긍지높은 삶이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모두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생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다니 어찌 이를 생시라고 믿을수 있겠는가고 쓰고 너무도 기가 차고 억이 막혀 자신은 터지는 통곡을 참지 못하고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최대의 슬픔이고 아픔이며 시대와 온 인류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였다.

범민련 구라파지역본부는 조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80여성상을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고도 조국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시였으니 비통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이시여!

한생을 통하여 민족과 인류에게 가르쳐주신 만고의 진리, 인간사랑의 가르치심, 조국통일의 성업을 저희들은 이어받겠습니다.

주석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심장가득히 품고 저희들은 민족대단결의 길, 자주평화통일의 성업을 완수하겠습니다.》

범민련 오스트랄리아지역본부는 조전에서 비통과 오열, 애도와 경모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비록 경애하는 수령님은 서거하셨지만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미주지역 교포인사들은 추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빈소를 설치하여 조문객들을 받았다.

총련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애도기간이 설정되였고 추도위원회가 구성되였으며 조의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총련 중앙과 단체, 사업체, 현본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과 학교들에서 조전을 보내왔고 도쿄조선회관에서는 추모의식이,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추모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한편 각 현본부들에서도 추도식이 진행되였다.

미국 로스안젤스에 거주하는 교포인사들은 추도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신한민보사에 빈소를 설치하고 조문객들을 받았으며 카나다에 사는 교포들은 토론토에 빈소를 설치하고 조문객들을 받았다.

비보를 받은 해외교포인사들과 동포들은 우리 나라 대사관과 령사관, 대표부를 조의방문하고 화환을 진정하였으며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와 모스크바고려인협회, 따쥐끼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조직대표들은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조의방문하고 화환을 진정하였으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묵상하였다.

그들은 인자하신 수령님을 다시 뵙지 못하게 된 비통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목놓아울었다.

중국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한없

는 슬픔을 안고 심양시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을 조의방문하였다.

항일혁명투사 서순옥을 비롯한 수백명의 조의방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묵상하였으며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리승만회장, 범민련 미국본부 양은식상임의장, 배강웅사무국장, 유태영공동의장, 《한인상공회의소》 신진기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재미교포들이 뉴욕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조의방문하였으며 구라파지역본부 최기환의장은 제네바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조의방문하였다.

《범민련》 인사들과 재일교포단체들인 《한통련》과 《한민련》, 《재일한국청년동맹》 중앙본부의 대표들과 《민단》계 동포들도 경건한 마음 안고 총련중앙본부를 조의방문하였다.

방문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고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묵상하였으며 조의록에 글을 남기였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 문달경무공사 한연옥교포는 비보에 슬픔을 금치 못하면서 고국의 만수대언덕과 신의주시를 비롯한 여러곳에 모셔진 주석의 동상에 화환을 보내여왔다.

해외동포들은 지난날 정견, 신앙과 생활경위가 각이한 자기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숭고한 재생의 길에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새로운 결의들을 다지였다.

재중동포 진은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역땅에서 살게 된것은 외세에 나라를 빼앗겼기때문이다. 그러던 그 후손들이 오늘은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살고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이는 민족이 낳은 위인이시다. 그처럼 걸출하신분께서 돌아가시였다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이 아픈 심정을 새로운 결심으로 바꾸겠다.

우리에게는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우리는 그이를 높이 모시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떨쳐나서겠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잃은 애통하고 절통한 심정을 금치 못해하는 해외동포들

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분

독립국가협동체지역에 널려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서거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주석을 잃은것은 조국인민들뿐아니라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돌이킬수 없는 손실로, 최대의 슬픔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먼곳에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으며 참된 애국애족의 길을 걷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려 조선의 말과 글, 력사와 문화를 배워줄 전문가들을 보내주신 일이며 조국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불러주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던 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과 함께 계시였다.

하기에 우리 모두는 주석의 서거를 친부모를 잃은 심정으로 슬퍼하고있다. 특히 금년 봄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1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그이께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렸던 동포들은 너무도 억이 막혀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나역시 지금까지도 경애하는 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분의 심장도 고동을 멈출수 있단말인가.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주석을 네번째로 만나뵈왔을 때 그이께서는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나의 손목에 채워주시며 민족의 단합을 위해 힘껏 일하자고 격려해주시였다. 깊은 뜻이 담긴 금시계는 지금도 기운차게 돌아가고있는데 주석께서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시고 애석하게 서거하시였으니 절통한 마음을 이루 다 표현할수 없다.

우리 민족은 가장 위대한분을 잃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주석의 자애로운 영상과 존함은 우리 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그이께서 민족과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대대손손 길이 빛날것이다.

형언하기 어려운 파로움과 상실감이 아무리 가슴을 찢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슬픔의 눈물만을 흘리고있을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은 든든하다. 우리 겨레는 마땅히 민족이 낳은 또한분의 위인이신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 주석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주석의 거룩하신 령전에 온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축포를 쏘아올려야 할것이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강 일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머나먼 이국땅에서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우리 재중동포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이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길림과 무송, 연길을 비롯한 동포들이 살고있는 모든곳에서 눈물의 바다, 울음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하늘도 정녕 무심합니다.

우리모두 분단 50년을 넘기기전에 통일을 이룩하자시며 저희들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약속하셨는데… 통일의 날 다가왔다고 환희에 넘쳐 기뻐하고있는 재중동포들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 길로는 절대로 가시지 못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테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정정하신 모습을 본 저희들은 우리 민족은 수령복을 지닌 민족이여서 그이께서 100살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기막힌 사실을 부정하며 나는 조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저는 꽃속에 정중히 안치되여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무릎을 꿇고 듣지 말아야 할 추도곡을 비장하게 들으며 우리 재중동포들의 절통한 마음을 담아 그이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80여성상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 7천만 겨레를 위해 신명을 다 바쳐오신 애국애족의 한평생이였습니다.

주석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있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더욱 각별히 사랑해오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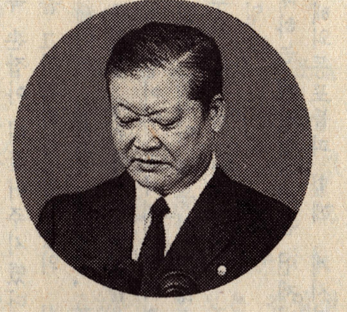
그러나 한피줄을 타고난 남조선 위정당국이 비보가 발표되자 불상사에 슬픔을 같이 나누지는 못할망정 도리여 민족의 령수를 잃은 동족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것은 초보적인 례의범절도 모르는 비인간적행위입니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7천만 겨레의 슬픔은 비길데 없이 크지만 우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절대로 절망에 빠지거나 비관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수령님의 령전에 호상을 서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맹세다진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지켜 분단 50년을 넘기기전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 영 동

수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국의 땅도 하늘도 비분에 차서 흐느낍니다.

나라없고 주권없던 그 세월 가랑잎마냥 풍랑에 실려 이리저리 흩어졌던 자식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길 통일의 그날이 다가왔다고 하나, 둘 손꼽아 세여가며 기쁨에 겨워 기다리는데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버이수령님!

우리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조국을 우리 상상할수 있단말입니까.

조국도 민족도 비애에 잠겨 백두에서 한나까지 온 강토가 몸부림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명줄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소생하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에 은정깊은 사랑의 손길로 동포들을 구원해주시고 존엄있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보살피심속에 참된 인간의 삶을 찾은 동포들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또 울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80여성상 이룩하신 업적은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위인중의 위인, 세계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누구나 그 품에 안기면 위대한 그 풍모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참된 인생의 행로를 찾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아, 너무도 절통하여 나는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믿을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면 동포들에게 어떻게 말한단말입니까.

해마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대원수님께 설맞이 공연무대에서 만수무강의 세배를 드리던 어린 학생들로부터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로력영웅으로 자라난 동포들, 해외생활의 파란곡절을 다 겪어온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며 어버이수령님을 찾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절대로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사회주의조국은 끄떡없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될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 허종만

위인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



미국에 있는 교포들속에서 불세출의 영웅으로, 위인중의 위인으로 칭송받고계시던 **김일성**주석의 서거는 예상치 않았던 사변이였다.

나는 뉴욕과 도꾜에 세번씩이나 전화를 해보고서야 이 슬픈 사실을 믿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던분이였다.

가슴이 터져오는 비통한 그 시각 나는 슬픔에만 잠겨 앉아있을수 없었다. 로스안젤스에 살고있는 교포들의 마음을 담아 주석께 가장 심심한 조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나는 북미주조선친선협회 고문을 비롯한 각계 교포인사들과 함께 추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우리 신한민보사에 빈소를 정중히 꾸렸으며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호상을 섰다. 밤이면 주석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날마다 수많은 교포들이 빈소에 찾아와 엎드려 통곡하면서 진심으로 주석의 명복을 빌었다.

미국각지에서 교포들이 추도준비위원회앞으로 보내오는 조전이 그칠새 없었다. 미국의 텔레비죤과 라지오도 미국땅에 **김일성**주석을 추모하는 빈소가 생겨나고 련일 조객들이 물밀듯이 찾아드는것은 하나의 사변이라고 광범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인을 잃은 우리의 마음속상처가 가셔질리는 만무하였다.

비보에 접한지 나흘째되는날 나는 평양을 향하여 비행기에 올랐다. 경애하는 주석을 마지막으로 바래워드리고싶었고 **김정일** 지도자께 내 심중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조의식장에 당도한 나는 주석의 령구앞에 무릎을 꿇고 미국에 살고있는 교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주석의 령구곁에는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께서 호상을 서고계시였다. 그 누구에게도 견줄수 없는 슬픔을 철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억센 모습으로 서계시는 그이를 뵈오니 마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앞에 선듯한 착각을 느끼였다.

나는 한없는 격정에 휩싸여 그이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씀올렸다. 《해외에 있는 저희들은 지도자선생님을 민족의 령수로 변함없이 받들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존경해오던 분의 령전에서 가장 신뢰하는분께 다진 맹세였다.

나는 숨지는 순간까지 이 맹세를 지킬것이다.

신한민보사 사장 김운하

그이는 영생불멸하리



내가, 우리 겨레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과 영결하게 되다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습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6월 19일부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미국 전 대통령 카터일행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고 같은날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을 통해 **김일성**주석께서는 정력적이고 지혜로운분이시라고 기자회견에서 카터가 한 말도 전해들었었습니다.

재미교포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땅에서 경애하는 주석의 영상을 뵈옵고 그 존함을 들으며 칭송의 목소리를 듣던 때의 환희와 격정은 그 어데도 비길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석께로 달리는 마음 간절할수록 그이의 혁명업적을 조금이라도 더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미국국립도서관에는 일본어로 된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경애하는 주석께서 전개하여오신 피어린 항일의 20성상의 빛나는 투쟁업적을 더욱 생동하게 반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의 하나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조사사업에 달라붙었던것입니다.

7월에 들어서며 막내딸과 함께 그 일을 더욱 다그치고있던중에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들줄이야…

전해지는 모든 소식을 부정하며 고국땅에 달려왔건만 주석의 령전앞에 서게 되였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입니까.

만나뵈올적마다 《최녀사》라고 불러주시며 그리도 반가이 맞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이시였습니다.

해외동포들의 애국애족의 그 마음을 더없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높이 평가하여주시던 주석의 그 믿음과 은총에 만분의 일도 보답못하였으니 이 불효막심함을 씻을길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고만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애하는 **김정일**지도자께서 계신다!

비애를 넘어 겨레의 심장과 심장에서 울리는 이 웨침! 해외동포들도 목소리 합칩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김일성**주석의 령전을 조의방문한 우리 해외동포들을 일일이 만나주실때 나는 필생의 맹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는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성업을 앞당겨오는 길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끝없이 흠모하여마지 않던 우리 해외교포들은 말하고싶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우리 겨레와 더불어, 삼천리 금수강산과 더불어 영생하리라고.

조국통일북미주협회 고문 최정렬

* * *

해외동포들이 조의록에 남긴 글중에서

《인생이 유한이라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시던 경애하는 주석께서 이처럼 갑자기 가시다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들 어찌 이처럼 비통할수 있으리까.

지금 조국산천은 눈물바다로 변했고 전세계는 슬픔에 차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총애를 받은 불초 최홍희의 섭섭하고 착잡하고 슬픈 마음 그 무엇으로 표현할수 있으리까.

그러나 이렇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모시고 대원수각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인줄을 믿으면서 마감인사를 올리는바입니다. 최홍희》

《위대한 수령님, 7천만 겨레를 두시고 떠나시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산천도 울고 겨레도 울고 천하가 울고있습니다.

수령님, 한번만이라도 다시 겨레를 향하여 그 자애로우신 말씀하실수 없겠습니까.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려고 겨레가 떨쳐나설 때 이렇게 가시니 정말로 비통합니다.

수령님, 비록 수령님은 우리결을 떠나시였어도 우리 7천만 겨레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의 주위에 주체사상으로 굳게 뭉쳐 기필코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재카나다 전충림, 김순영》

또한 금강산국제그룹 박경윤회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가 광명성의 빛으로 이어져 우리 삼천리 국토에 길이 빛날 때까지 이몸을 바쳐 일할것을 맹세한다고 썼으며 재미교포 녀류기자 문명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조국통일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는 슬픔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썼다.

추 도 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전에

아침저녁 만수무강을 빌며
운명을 다 맡기고산
숱한 자식들을 이 세상에 남겨 놓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솟구치는 슬픔을 눈물의 덩어리로 쏟으며
ㅡ수령님! 수령님!
아버지없이 우리 어이 살랍니까!
땅을 치며 몸부림치는 자식들의 곡성을 남겨놓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평생을 인민위해 인민속에 계시며
인민을 떠나서는 못사신다 늘 말씀하시며
어제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꿈이 아닙니까 정녕 이것이 꿈이라면
하늘도 벼락을 쳐서 이 꿈을 왜 깨우지 못합니까

그렇게도 밝으신 웃음 세상에 없었습니다
환히 웃으시면 하늘의 해도 무색해지더니
그렇게도 자애로운 음성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번 울리면 동지섣달 강얼음도 녹아내리더니
이제는 그 모든것 우리 영영 잃었단말입니까

이날까지 우리 살아오며
태양의 수명을 계산해본적 없듯이
우리 어버이의 생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생각해본적 없었습니다
수령님은 저 해님처럼 하늘처럼
영원무궁하리라고만 믿어왔습니다

그 무엇이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백발을 얹으며 흘러가는 세월탓이라면
민심도 모르고 천심도 모르는
세월이 무심합니다

잠시나마 일손을 놓으시고
편히 계신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다 해도
우리 가슴 이토록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자기를 다 태워
만물에 빛과 열을 주듯이
생의 마지막날까지
밤늦도록 일군들과 마주앉아
통일의 밝은 전망 열렸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신 수령님

학생들에게 교복을 다 해입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그것이 너무도 반가우시여 일군들의 손을 잡으시고
좋은 일을 했다고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신 우리 어버이
아, 누가 올려야 할 감사인데
오히려 수령님께서 사례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생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였습니까
그렇게 인민을 위하시며 그렇게 가시였습니까

못가십니다, 수령님
그렇게는 못가십니다
낯설은 타향만리에 부모님들을 다 묻으시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청춘을 다 바치시며
찾아주신 이 조국을 두시고
한생을 품에 안아 키워주신 이 인민을 두시고
이 락원을 두시고
수령님 어디로 가신단말입니까

풍년든 가을날엔 다시 오겠다고
씨뿌리는 봄날에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시고
떨어지기 아쉬워 발버둥치는 아이들에게
다음해 설날에 또 만나자고
기념사진도 또 찍자시던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
수령님 영영 가신단말입니까

수령님 계시기에 우리 사는 나라는 비록 작지만
세상에 제일 떳떳이 머리를 든 큰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혁명처럼 간고한 혁명은 없지만
수령님 계시기에
몸이 찢기고 피가 나도 아픈줄 모르고 헤쳐왔습니다

우리 살림 어렵던 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수령님을 쳐다보며 힘을 얻어 참고 견디였고
분렬된 민족의 고통은 형언할길 없었건만
통일의 그날을 믿으며 살아왔고
세계에 때아닌 동란이 일어
사회주의가 곡절을 겪고있지만
수령님 계시기에
래일엔 붉은기발이 지구를 덮을
그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혁명을 지켜왔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왜 이리 눈앞이 캄캄합니까
이날까지 머리우에 이고산 하늘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도 밝게 빛나던 태양은 어디로 갔습니까
단군이래 반만년 민족사에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있었습니까
유구한 인류사에 이런 큰 손실이 있었습니까

수령님의 뜻으로 흘러온
력사도 비통하여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불변의 법칙으로 무한의 공간을 달리던
우주의 시간도 정지했습니다
인류의 위인 혁명의 위대한 로장을 잃어
지구가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엔 믿을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대한 심장이 멎을수 있습니까
피어린 전장터를 수없이 누벼오셨건만
원쑤의 총탄도 두려워 피하던 강철의 그 심장이
하늘땅이 뒤집혀도 변색을 모르는 붉은빛을
우리 당 기발에 물들여준 열렬한 그 심장이
어떻게 멎을수 있습니까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
백전백승의 총검을 벼려낸 무적의 그 심장이

아닙니다, 수령님은 절대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식들이 가는 길이 어둡지 말라고
길을 잃고 헤매이지 말고
드팀없이 곧바로 가라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세워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도 없는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라고
그것을 못지켜 조국잃은 고아로 되지 말라고
자본의 노예로 천대받지 말라고
우리의 하늘을 주고계십니다
우리의 태양을 주고계십니다
양양한 미래를 주고계십니다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충성을 다하라고
이 시각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계십니다
수령님 알겠습니다
목숨으로 그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어버이를 잃고 온 나라 인민이
목놓아 오열을 터뜨리며 흘리는
오늘의 이 눈물은
일심단결로 더 억세여지는 맹세입니다
슬픔과 눈물을 불길로 태워
우리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날 우리 당의 두리에 강철로 뭉쳤다면
오늘은 강철도 다스리는 금강석처럼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혼연일체로 더 굳게 뭉쳐
수령님 다져주신 만년로대우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주체의 이 장엄한 진군길우에
쌓으신 업적과 함께, 계승되는 위업과 함께
수령님은 영생하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어가시는 그 자욱과 함께
풍년든 벌판, 자동화의 구내길에, 아이들의 궁전에
수령님의 자욱은 끝없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그 자애로운 음성과 함께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시며
수령님의 음성은 인민의 가슴속에 끝없이 울리고있습니다
7천만이 환호할
통일의 광장에도 높이 울릴것입니다

아, **김일성 김정일**은 하나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된 21세기의 창공에
영광의 기치로 찬란히 나붓길것입니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함께
인류와 함께
세기와 더불어
불멸할것입니다
영생할것입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체의 혁명위업 대를 이어 완성하리라

강철로 당을 받들어나가리



어버이수령님, 이 어인 일이십니까.

그처럼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다니 세상에 이런 절통한 일이 어디에 또 있단말입니까.

언제나 황철에 오시면 용해공들의 손부터 먼저 잡아주시고 소박한 청도 허물없이 들어주시던 수령님.

그 덕망이 너무도 고마와 한덩어리의 강철을 뽑아도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마음을 안고 뽑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축원하였으며 꿈속에서도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정성을 다 바쳐왔는데 이제는 한없이 뜨겁고 부드러운 수령님의 손길을 잡아볼수가 없고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을 더는 들을수 없다니 과연 하늘의 태양도 꺼질수가 있단말입니까.

어버이수령님, 수령님께서 어제날 머슴군의 아들이 오늘은 용해공로력영웅이 되였다고 저의 어깨를 잡아주시며 대견해하시던 일이 엊그제같은 일입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로세대용해공들이 늙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하시며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더 늙지 말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일도 엊그제같은 일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은 사랑에 목이 메여 우리가 《수령님, 우리는 일없습니다. 수령님께서 만년건강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심정을 말씀드리자 자신은 일없다고, 동무들이 건강하여 일을 잘하면 자신께서도 오래 산다고 하시던 수령님께서 이렇게 가시면 우리는 어찌하랍니까.

인민의 어버이를 잃은 황철로동계급의 아픔은 비길데없이 크지만 우리 용해공들은 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황철의 로동계급이 강철로 당을 잘 받들라고 하신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당부이십니다.

우리들은 더 높은 강철증산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모시고 철저히 옹호보위해나갈것입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용해공
로력영웅 리 만 권

영원히 효녀로 살리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받은 순간 저는 그만 졸도하고말았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생에 끝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저였기때문입니다.

금수산의사당의 조의식장, 눈물머금고 피여있는 꽃밭속에 주무시는듯 조용히 누워계시는 우리 수령님.

금시라도 일어나시여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오냐, 명연이가 왔구나.》하며 기뻐하실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이 안아오는 환각입니다. 그이께서는 영영 우리곁을 떠나시였습니다. 이제는 해빛같이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을 다시는 뵐수 없게 되였으니 절통한 마음 달랠수 없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는 이 순간 제일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것은 생전에 그이께 걱정만 끼쳐드린것입니다.

1964년 1월 어느날 우리 농장포전에서 18살 단발머리처녀였던 저를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그후 30여년세월 마흔두번이나 접견해주시면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나어린 처녀가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는것이 기특하여 명절날에도 휴식하지 않으시고 저의 농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어느해 조국해방의 날에 우리 농장에 오신 수령님께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시라고 간절히 말씀올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나는 이렇게 농장의 포전길을 걷는것을 휴식으로 여긴다고 하시면서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였습니다. 제가 논벼 정당수확고를 높이기전에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대답을 올린 어느날에는 시집도 가고 알곡소출도 높일 방도를 의논해주시였고 결혼식날에는 수십대의 뜨락또르를 결혼선물로 보내주시였으며 자식들의 장래도 책임져주시였습니다. 정녕 수령님은 저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저는 온 나라가 다 아는 관리위원장, 로력영웅으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 농장의 논벼와 새로운 품종의 작황을 보시고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이께서는 올해에 다시 오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나저제나 그이께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보를 받았으니 참으로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십니다.

그이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십니다.

저는 수령님께 다하지 못한 충성과 효성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깡그리 다 바치며 영원히 효녀로 살겠다는것을 맹세다집니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김 명 연

항일의 그날처럼



장백의 험산준령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남기시며 항일혈전의 수십만리를 헤쳐오신 백두산장수의 그 거대한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니 이런 청천벽력도 있단말입니까.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도 이보다 더 절통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피바다, 불바다를 넘으시여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항일투사들을 금싸래기와도 같이 귀중히 여기시며 혁명의 1세대로,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이 세상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난 5월 우리 항일투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투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건강은 어떤가고 자애에 넘치시여 물어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발자국을 힘겹게 옮기는 저를 보시고 백두산에서 싸울 때 상한 다리가 더한가고 걱정하시며 왜 그렇게 걷는가고, 자신처럼 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동작까지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모두 100살을 살자고, 그래서 **김정일**동지를 잘 도와주자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싸움군들이 모였는데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투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습니다.

항일의 그날로부터 그렇게도 우러르고 따르고 받들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그렇게도 인자하시고 살뜰하시던 민족의 어버이와 이제는 영원히 영결해야 한단말입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영결식장에서 저는 심장으로 굳게굳게 혁명의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백두밀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싸웠던것처럼 저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는데서 앞장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하도록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국의 운명이시고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영원하며 우리 인민도 영원할것입니다.

항일혁명투사 태 병 렬

실천만을 아는 과학자로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곁을 떠나시다니?!



수령님, 수령님을 추모하는 수도의 추도대회 대오속에 이름없는 과학자 리순영이도 서있습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 과학자로서 저의 오늘의 삶과 운명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해방전 강원도의 한 산골마을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여나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란 저는 해방후 당의 품속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과학연구분야에서 일하면서 미흡하지만 정광수송문제를 비롯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인민경제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여 박사, 부교수, 공훈과학자로 되였습니다.

저는 1987년을 평생에 잊을수 없습니다. 그해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의 날 과학도시 평성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시대의원 립후보자로 추천된 저를 축하해주시고 찬성투표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행복, 이런 특전을 받은 과학자가 또 어데 있겠습니까.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조선지식인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참가시키는 등 영광이란 영광은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이 순간 생전에 수령님의 뜻을 더 잘 받들지 못하고 그이의 만년장수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으로 더욱 가슴아프고 머리를 들수 없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더욱 분발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비록 심장의 고동은 멈추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믿음과 사랑은 충성을 낳는법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창창합니다.

저는 과학연구분야에서 실천적인 성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정광수송능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탐구사업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두어 자기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실장
리 순 영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인간의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하늘이 내신분이 아니십니까. 이 지구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다시는 모실수 없는 그런 절세의 위인에게도 과연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말입니까.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이 비보에 접하여 우리 영화예술인들은 오열을 터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눈앞에 삼삼합니다. 남녘땅에서 식민지배우의 설음과 고통을 안고 몸부림치던 제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찾아 38선을 넘어온 몇달후인 1948년 여름 몸소 영화촬영소에 찾아오시여 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남조선에서 얼마나 고생하였는가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물어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후에는 해방된 조국의 첫 예술영화인 《내고향》의 녀주인공역을 맡겨주시고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며 1952년 12월에는 저에게 첫 공훈배우의 칭호도 안겨주시였고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여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그 남다른 사랑과 은정 속에서 내 나이 78살, 전사들은 아직 청춘으로 살아있는데 어이하여 우리 수령님 이리도 빨리 우리곁을 떠나신단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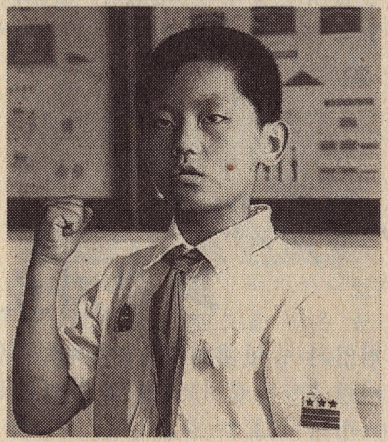
조국통일을 그토록 바라시던 어버이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고 남조선의 영화인들과 함께 참다운 민족영화를 창조하여 그이께 기쁨을 드려보자던 저의 한생의 소원도 받아주시지 않고 가셨으니 이 절통하고 애절한 마음 그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우리 영화예술인들의 친근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서 우리는 심장의 맹세를 다집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꼭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땅우에 그이를 높이 모시고 참다운 민족예술을 꽃피워나가겠습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문 예 봉

나라의 억센기둥으로 자라나겠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며 이 세상 가장 훌륭하고 좋은것 다 안겨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키워주시던 붉은 넥타이를 맨 우리 소년단원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 왜 이렇게 누워계십니까, 어서 눈을 떠주십시오.

옛말, 동화에 나오는 그런 불로초, 불사약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인민들이 대원수님 만년장수 바라며 올린 산삼보약도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돌려주시고 통학길이 멀어 힘들어한다고 통학 렬차, 뻐스, 배까지 보내주시며 온갖 사랑 다 돌려주시던 대원수님, 어찌하여 우리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가신단말입니까.

해마다 설날이 오면 아버지대원수님을 모시고 기쁨에 넘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우리 이제 다시는 그런 영광, 그런 행복을 지닐수 없단말입니까.

불과 한달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우리 소년단대표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환한 미소 지으시며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역군이 되라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고 가슴가득히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신 아버지대원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그 은정 다 알기에는 우리 나이 너무 어리나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는 충성동, 효자동이가 되는 그 길이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대원수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것을.

나라의 억센 기둥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정일**원수님 따르는 그 길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찾아해서 우리 조국의 미래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평양 중신인민학교 소년단위원장
라 혜 성

인민은 크나큰 슬픔속에 수령님과 영결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평양시민들의 눈물의 바래움을 받으며 천리마거리를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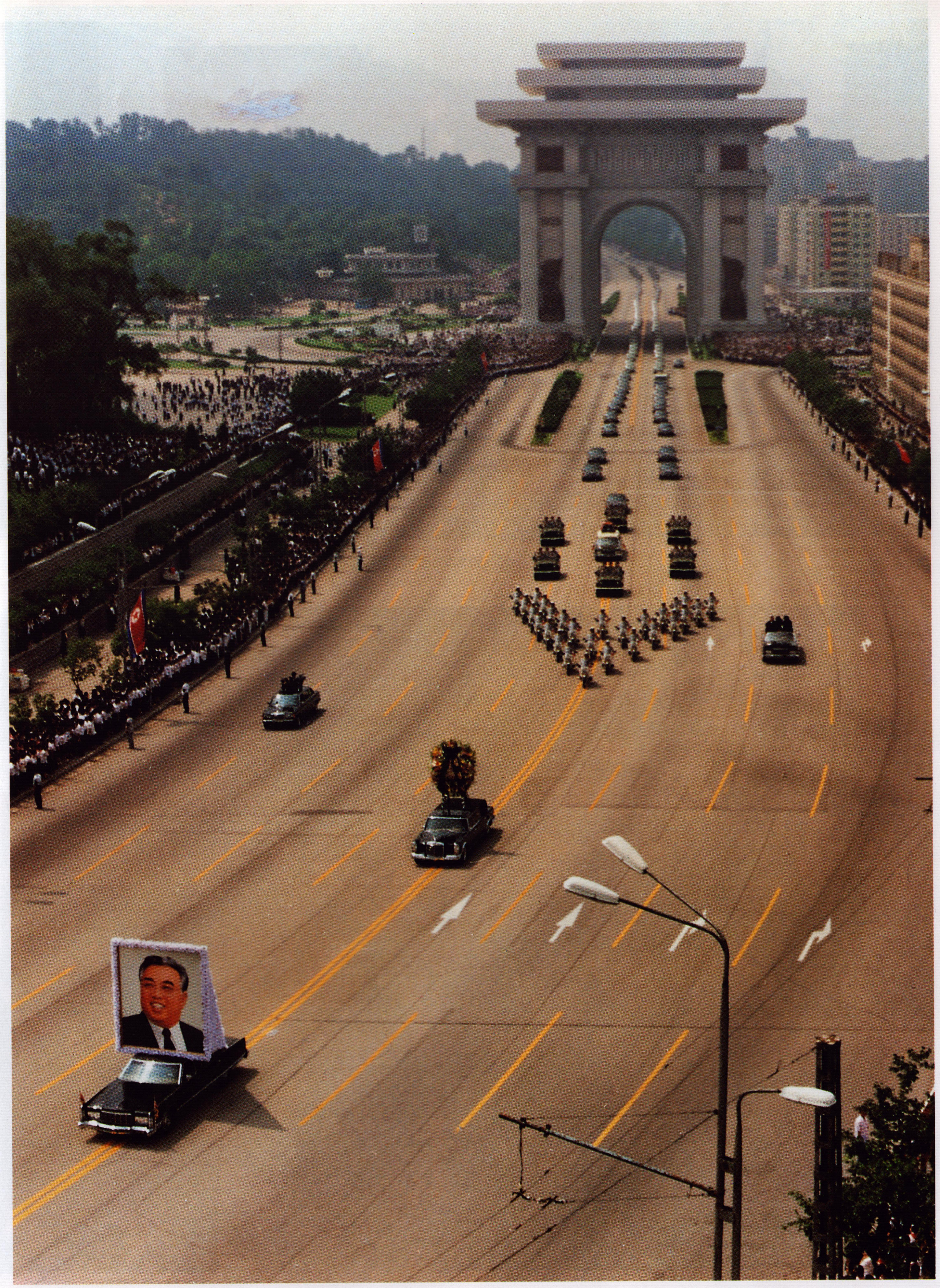
경구차앞에서 달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차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차행렬이 **김일성**광장에 들어서고있다.



옥류교를 건너서고있는 령구차대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구를 모신 령구차는 평양시민들의 크나큰 슬픔속에 개선거리를 누벼나간다.



연도에는 학생들도 나와서 령구차를 바래고있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긴 해외동포들



비통한 심정안고 몸부림치는 인민들



곡성을 터뜨리는 영화예술인들

이 땅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자욱 길이 빛내여가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추모하는 황해남도추도식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청산리농업근로자들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결의에 충만된 황철의 로동계급

사진 박지서 김광진 남용일
리히철 정명준 박강철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글발

